

천출명장의 손길아래 자라난 무적필승의 최정예강군

조선인민군창건 75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주제37(1948)년 2월 8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것은 주제적혁명건설과 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사변이었다.

당시 《로동신문》은 《그 이름도 조선인민군! 장엄! 평양역두에 열병식!》이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대서특필하였다.

《...하늘을 찢는 신화탄발사의 총성이 울리면서 인민군대의 열병식대진군은 개시되었다. 대군악대의 행진곡에 발맞춘 대오마다 천지를 삼킬듯한 기세다. ... 한대오 한대오 김일성위원장상을 지나는 광영에 몸도 떨린다. 왜 우리 리보이는 곳에 김일성위원장! (만세!) 소리는 길게 뻗어 파르르파르르 구르는 발발에 땅도 꺼질듯하다. 김일성위원장은 손을 높이 쳐들어 이에 화답한다.》

누가 우리 강토를 침범할수 있느냐? 누가 우리의 행복을 짓밟을수 있느냐? 우리에게 절세의 예족자 김일성장군이 계신다!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의 행복을 보위해줄 굳건한 인민군대가 있다!... 인민들은 이런 자신심에 넘쳐있었다.

력사의 그날 어버이수령님 옆자리에서 열병식을 직접 체험한 외국의 인사는 후날 자기의 수기에 이렇게 썼다.

《김일성동지와 가까이에서 사업하면서 나는 의문되는 점이 수시로 생기곤 하였다. 호미 한가락 버릴 변변한 밭전도 없는 락후하고 파괴된 식민지경제를 넘겨받은 조선, 조선은 실상 남들 같으면 특근보병 한중의 무력만 건설하해도 열변은 머리를 기웃거렸을 그러한 형편에 있었지만 김일성동지께서는 하나의 군종이 아니라 국방에 필요한 모든 군종, 병종을 다 꾸리실 대담한 건군군술을 내놓으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것을 과감히 밀고나가시

었던것이다.

조선의 빨찌산대장이 어찌서, 어떻게 남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을 그렇듯 주저없이 결심할수 있었으며 그렇듯 훌륭하게 실현할수 있었겠는가 하는것은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였다.

2월 8일은 동방조선의 신비한 승리를 예언하는 마치고 하느님의 계시가 있는 날,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기적을 탄생시킨 날이었다.》

조선의 정규군대가 태어나고 첫 열병식이 있는데 이어 다음해 8.15해방 4돐에 진행된 열병식은 짧은 기간에 군건설에서 이룩된 눈부신 성과를 잘 보여주었다.

각종 저격무기로 무장한 보병대오, 기병대들이 씩씩하게 나아가고 하늘에서는 새 조선의 첫 비행대가 날았으며 땅에서는 모리찌를 선두로 자동차, 포, 탱크부대를 비롯한 각종 기술병종들의 대오가 광장을 누빈 장엄한 열병식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건군군술의 빛나는 승리를 보여주는데 또 하나의 역사적화폭이었다.

1950년 6월 미제는 창건된지 두해밖에 안되는 인민군대를 앞보고 전쟁의 불을 질렀다. 아마도 그때 조선인민군이 오랜 침략전쟁사를 가진 미국을 타승할수 있다고 믿은 사람은 없었을것이다. 그야말로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었던것이다.

미국도 72시간안에 조선을 정복할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다. 허나 그 72시간이 수백번도 더 반복되어 3년간에 걸친 전쟁에서 세인은 무엇을 보았는가. 미국의 처절한 패배였다. 정전협정조인후 마이크로에 나타난 미국대통령 아이젠하워는 구슬픈 어조로 《내가 그랬을 그러한 형편에 있었지만 김일성동지께서는 하나의 군종이 아니라 국방에 필요한 모든 군종, 병종을 다 꾸리실 대담한 건군군술을 내놓으시고 누가 뭐라고 하든 그것을 과감히 밀고나가시

주제42(1953)년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의 밤하늘에 전승의 축포가 터져올랐고 다음날에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역사적인 방승연설이 누리에 울려 퍼졌다.

그이의 연설은 온 나라를 승리의 감격과 환희로 더욱 세차게 끓여버리게 하였다.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면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횡포한 침략세력을 물리치고 값비싼 승리를 안아올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상과 전략술,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없이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공화국의 인민과 군대가 침략자들을 타승하고 승리자의 존엄과 영예를 떨칠수 있게 한 원천이었다.

일찌기 10대에 항일대전을 선모하시고 피어린 무장투쟁을 승리해오 이끄시어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였기에 공화국은 처음부터 승리한 전쟁을 하였다.

즉시적인 반공격전과 포위섬멸전, 적극적인 진지방어전, 비행기사냥군조운동과 땅크사냥군조운동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전략과 전술, 전법들은 미제의 수적, 군사기술적 우세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전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다 기보야야 한다고 하면서 싸우는 총대의 강약에 의하여 좌우된다든 력사의 진리를 절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국건설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무력에 대한 평도의 첫 시기에 벌써 인민군대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무력에 대한 평도의 첫 시기에 벌써 인민군대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었다.

어버이수령님처럼 창건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군대를 이끌어 강대한 침략세력을 쳐물리치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수호한 걸출한 명장을 알지 못하고있다.

수백명의 공화국영웅을 비롯한 수십만여명의 수훈자와 10여개의 근위부대를 배출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주제적인 군사상과 탁월한 전략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 안아온 미증유의 군사적기적이었다.

조국보위, 인민보위의 사명에 충실한 조선인민군은 60년대와 70년대에도 자위의 군사로선에 따라 일당백의 기적높이 그 어떤 강적도 단애에 때려부실수 있는 불패의 전무대로로 장성강화되었다. 이 나날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비롯하여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을 짓부시며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였다.

빈터우에서 자력건군의 대업을 실현하시고 인민군대를 전군이 간부화되고 현대화된 일당백의 전투대오로 키우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크나큰 업적이다.

주제의 건군위업은 위대한 김일성장군의 탁월한 군건설사상과 평도에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되었다.

일찍부터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총대의 강약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력사의 진리를 절감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국건설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화국무력에 대한 평도의 첫 시기에 벌써 인민군대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시었다.

수령님사상과 로선은 혁명적당군의 면모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울수 있게 한 불멸의 지침이다. 백승의 전략술과 혁명무력의 최정예화, 강군화로선을 제시하시고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열매에도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을 총대로 옹위하는 인민군대의 성격과 사명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었다.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선군의 기적높이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을 백만으로 강화하여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위를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다.

총포성없는 반미대결전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으신 그이의 크나큰 공적은 인민군대가 승승장구하여온 75성과 더불어 오늘도 길이 빛나고있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정성기를 펼쳐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평군술, 무비의 당력, 배짱을 지니신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평도는 조선인민군이 무적강군으로서의 강성한 기상과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나가게 하는 결정적요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책임무로 밝혀주시어 인민군대가 당의 군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해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그리고 인민군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전군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제시하시어

군건설사상과 로선은 혁명적당군의 면모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울수 있게 한 불멸의 지침이다.

백승의 전략술과 혁명무력의 최정예화, 강군화로선을 제시하시고 근위부대운동, 명사수, 명포수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열매에도 백두에서 개척된 민족자주위업을 총대로 옹위하는 인민군대의 성격과 사명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었다.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선군의 기적높이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군사기술적위력을 백만으로 강화하여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안위를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신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다.

총포성없는 반미대결전에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놓으신 그이의 크나큰 공적은 인민군대가 승승장구하여온 75성과 더불어 오늘도 길이 빛나고있다.

오늘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자기 발전의 최정성기를 펼쳐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평군술, 무비의 당력, 배짱을 지니신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평도는 조선인민군이 무적강군으로서의 강성한 기상과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나가게 하는 결정적요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기슭에서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책임무로 밝혀주시어 인민군대가 당의 군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해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그리고 인민군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전군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제시하시어

며 공화국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지난날 화승총 하나 변변히 만들수 없어 종당에는 5련발총과 대포, 군함을 가지고 달린 침략세력에게 짓눌려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여야 하였던 조선민족이 세계최강의 전쟁역제력을 비축한 강대한 나라의 인민으로 되게 되었다.

공화국의 혁명무력은 침략세력이 원하고 령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대응해줄수 있으며 단애에 제압할수 있게 준비되어있다.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려려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지구상 어디에 있는 절대로 용서치 않으려는것이 공화국무력의 서리발치는 멸적의 기상이다.

평도의 첫 기슭에서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책임무로 밝혀주시어 인민군대가 당의 군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해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그리고 인민군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전군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제시하시어

며 공화국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지난날 화승총 하나 변변히 만들수 없어 종당에는 5련발총과 대포, 군함을 가지고 달린 침략세력에게 짓눌려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여야 하였던 조선민족이 세계최강의 전쟁역제력을 비축한 강대한 나라의 인민으로 되게 되었다.

공화국의 혁명무력은 침략세력이 원하고 령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대응해줄수 있으며 단애에 제압할수 있게 준비되어있다.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려려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지구상 어디에 있는 절대로 용서치 않으려는것이 공화국무력의 서리발치는 멸적의 기상이다.

평도의 첫 기슭에서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책임무로 밝혀주시어 인민군대가 당의 군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해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그리고 인민군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전군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제시하시어

며 공화국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지난날 화승총 하나 변변히 만들수 없어 종당에는 5련발총과 대포, 군함을 가지고 달린 침략세력에게 짓눌려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여야 하였던 조선민족이 세계최강의 전쟁역제력을 비축한 강대한 나라의 인민으로 되게 되었다.

공화국의 혁명무력은 침략세력이 원하고 령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대응해줄수 있으며 단애에 제압할수 있게 준비되어있다. 나라와 인민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려려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지구상 어디에 있는 절대로 용서치 않으려는것이 공화국무력의 서리발치는 멸적의 기상이다.

평도의 첫 기슭에서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책임무로 밝혀주시어 인민군대가 당의 군대로 끊임없이 강화발전해나갈수 있는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었다. 그리고 인민군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전군 김일성주의화강령을 제시하시어



《승리》 상은 패배자를 내려다 본다



공화국에서 건군절이 하루 하루 다가오고있다. 창장 75년세월 언제나 승리, 이 두 글자를 건군사에 아로새겨온 조선인민군이다. 지구상에는 나라도 많고 군대마다 자기의 발전력을 가지고있지만 조선인민군과 같이 오직 승리와 영광의 자욱만을 수놓아온 무적멸승의 강군은 세상에 없다. 승리! 이 말을 외워 볼수록 주체37(1948)년 2월 8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정국적혁명부력인 조선인민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그 날로부터 7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언제나 승리라 그 이름 높이 떨쳐온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자랑찬 행로가 어려와 가슴부딪음을 금치 못하는 이 나라 인민들이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

이러면 누구나 승리라는 그 부름과 함께 제일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다. 풍치수려한 보통강변에 시대의 국보적인 대기념비적창조물로, 세계적 기념관으로 거연히 솟아 오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정면에 서있는 《승리》상이다. 한손에 공화국기를 높이 추켜들고 왼수격멸의 맨 앞장에서 용사들을 승리로 부르는 인민군병사를 형상한 《승리》상은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뚫어놓는 승리와 패자, 강자와 약자를 명백히 갈라놓은 대결장. 100여년의 침략전쟁사에서 단 한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제국주의괴수인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참패의 첫 페이지를 쓰게 한 력사의 심판장이었다. 《전쟁과 미국》이라는 미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면서 조미대결전에서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조선의 자랑찬 력사와 수치스러운 패배만을 기록해온 미국의 쓰디쓴 력사를 말해주는듯, 영원한 패자의 모습이 어떠한 줄 후세에 전하러는듯 줄레줄레 제나름의 불꽃들을 드러내놓고있는 적군무장장비들이다. 돌이켜보면 창건된지 2년밖에 안되는 청소년 조선인민군과 《유일초대국》이라 자처하던 미국과의 3년간의 전쟁은 승자와 패자, 강자와 약자를 명백히 갈라놓은 대결장. 100여년의 침략전쟁사에서 단 한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제국주의괴수인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참패의 첫 페이지를 쓰게 한 력사의 심판장이었다. 《전쟁과 미국》이라는 미

죽도서의 한 부분을 여기에 적는다. 《력사적으로 고찰해볼 때 미국은 명성높은 장군들을 한두명 파견하여 전쟁의 승리를 획득하는데 습관되어왔다. 그러나 조선전쟁은 미국의 장군들을 매장시키는 무덤이었다. 상대한 적의 북조선군총수 김일성장군은 30대의 젊은 장군이었다. 그분의 뛰어난 지략과 령군술에 의해 미국이 패전의 고배를 마신것은 수치스러운 대아메리카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 또 외국의 한 군사전문가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퍼력했다. 《전쟁에 관한 기존관념과 기준에서 보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닐가 할 정도로 놀라운 결과였다. 그러나 군사전문가인 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서 우연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른 사물현상에는 우연이 있을수 있어도 힘과 정신력의 대결인 전쟁에서는 우연이란 있을수 없으며 오직 필연만이 있을뿐이다.》

이제는 너무도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전쟁 당시 미제는 조선전선에 현대적기술장비로 무장한 자기 나라 육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과 지중해함대의 일부 그리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추종국가 군대들을 포함하여 수백만의 병력을 동원하였다. 그와 반면에 공화국은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요람기의 국가였다.

그러나 미제가 일으킨 3년간의 조선전쟁은 공화국인민과 조선인민군의 위대한 승리로 끝났다. 72시간만에 조선전쟁을 결속한다고 어리석게 뇌까리며 도발의 불을 질렀던 미제는 그 72시간이 수백번도 더 반복되어 2만 7000여시간만에 수치스러운 패배자가 되어 세계의 면전에 섰다.

포격에 해발고마저 낮아진 고지들에서 결사전을 벌이고 더 불타갈이 없어 돌과 흙에마져 불타갈던 철화속을 넘으면서도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사량하는 조국명예에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공화국의 인민과 군대이다.

승자는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패자는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는 말이 있다. 미국은 말로도 자기의 참패를 변명할수 없는 처지에

서 항복서에 도장을 찍적었다. 그러나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교훈을 찾은 대신 조선땅의 질반을 타고앉아 호시탐탐 공화국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노리었다. 미제무장강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대형간첩비행기 《EC-121》사건, 판문점사건과 같은 군사적도발행위들, 년대와 해를 거듭하면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적인 군사연습들을 벌여놓는 미국의 책동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조미대결전에서 련전련패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공화국과의 대결에서 미국이 승자가 아니라 패자이고 강자가 아니라 약자라는것을 속명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1960년대초부터 반제반미 대결전의 진두에 서시어 미제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리시었다. 선군정치로 공화국의 군력이 더욱 강화되던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국대통령이 담보서한을 보내어왔고 공화국의 존엄과 국위는 단방에 떨치게 되었다.

사람들은 미제가 패배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력사적인 그 순간순간들을 오늘도 생생히 기억하고있으며 후대들에게 승리자들의 무훈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주고있다. 언젠가 완공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으신 정예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승리》상을 축으로 부주제군상위에 전개된 공훈무기전시장에 비롯한 야외전시장도 참관에 편리하면서도 우리 군대의 위훈과 적들의 패배상을 잘 알수 있게 꾸러져 대로천박물판으로 전변되었다고 하시면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에지와 탁월한 군사사상, 불면불휴의 전승업적을 만대대 길이 빛내이기 위한 만년재보로 푸리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지금도 온 나라 인민들은 2년전 7월의 환희로웠던 그 밤 황홀한 불야경속에 빛나는 《승리》상을 바라보시며 거룩한 자욱자욱을 내외시던 정예하는 원수님의 숭엄하신 존안을 뜨거워오르는 격정속에 우러르곤 한다. 영웅적인 지난 세기 50년대 그날의 용사들을 마중가

시는듯, 돌아온 전사들도 돌아 못한 렫사들도 한품에 다 포용하실듯 한발자욱한발자욱 옮기실 때 경애하는 그의 심중에 그득히 차오른것은 무엇이었겠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그의 불같은 심중의 말씀을 심장으로 들었다. 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 절대로 헛되지 않았으리라! 오늘도 계속되고있는 포성없는 전쟁에서 전대미문의 도전과 난관이 첩첩만겹으로 막아선다 해도 전승세대의 위대한 그 정신, 그 넋이 이 땅을 딛고선 심장들의 피출속에 맥동치는한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아래 오늘날 조선인민군은 가용할 타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춘 세계적인 강군, 세계최강의 절대적힘을 지닌 강위력한 군대로 자라났다.

지난해 11월 신형태극관란 도미씨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적들이 핵타격수단들을 변질나게 끌어들이며 계속 위

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단호히 핵에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담할것이라고 엄숙히 천명하시었다. 뿐만아니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공화국의 핵무력정책이 공식 법화되어 만년대계의 안전담보가 구축되고 사회주의조선의 전략적지위가 세계에 명백히 각인되었다.

지금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영웅적인민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의 《강대성》신화를 꺾어놓고 수심성상의 반미대결전에서 궁지높은 련전련승의 렫사를 빛내어온데 대하여 다스금 똑똑히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격찬하고있다. 《전승기념관이 만대대 빛나듯이 김정원수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은 영원히 승리만을 이룩할것이다.》, 《철세의 위인 김정원수님을 모신 조선은 참으로 강대한 나라이다. 전승기념관은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상징이다.》 조선의 영원한 《승리》상! 거기에 빛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친필

《위대한 년대에 경의를 드린다》는 위대한 친출명장을 높이 모시고 빛나는 진승의 전통을 가진 인민의 앞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고 영원히 승리와 영광만이 빛나는것을 다시금 새겨주었다.

높이 서서 빛나는 《승리》상의 발밑에 지금도 조선의 전리품인 미국의 파괴된 탱크와 포, 비행기, 저격무기들과 무장강첩선 《푸에블로》호가 오도가지 못하고 주 그리고 최수처럼 앉아있듯이 조선은 오늘도 미국을 눈아래로 굽어보고있다.

아니, 그것은 영원히 승리로 빛나는 조선의 모습과 영원한 패자로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있는 미국의 모습이야. 조선인민군창건 75돌이 바야흐로 다가오고있는 뜻깊은 이 시각 《승리》상은 처참하게 파괴된 미국의 무장장비들과 무장강첩선 《푸에블로》호에 말하듯이 대양건너를 향해 다시금 이렇게 선언한다. 이 땅을 감히 침범하는자들은 그가 누구든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본사기자 유금주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력을 보여준 국방발전전람회 《자위-2021》

미국의 고달픈 운명 - 속수무책

《유일초대국》이라 일컫는 미국이 《안보위협》이라는 시한탄을 등에 얹고 속수무책으로 전진공공하는 고달픈 날과 날이 흐르고있다. 공화국의 날로 강화되는 강세앞에 풀머리만 남은 미국의 모습은 처량하기만 하다. 지난해에만도 미국땅에서는 조선의 그 어디에 가도 볼수 있는 저수지와 철도, 도로, 수림지대가 다 미국을 조준경 안에 집어넣고 핵탄두를 장착한 미싸일을 쏘아올릴수 있는 발사기지로 되었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왔고 이전 미합동참모본부 의장도 《현재 조선의 군사적위력은 령대 최고수준이다. 미국은 보다 위험한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고 비명을 질렀다.

날로 고도화되는 공화국의 강세앞에서 어느 하루도 발전잠을 자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는 미국. 세계에서 핵무기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있고 찍하면 힘으로 위협하고 핵동동이를 휘두르기 좋아하는 미국이다. 그러나 그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나라가 다른아닌 조선이다. 왜서인가. 절세위인을 모시고 절대적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조선이기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을 압살하기 위해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다가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다. 원자탄과 보통총의 대결이라고 할수 있는 전쟁에서 핵을 가진 미국이 패배의 쓰디쓴 고배를 마신것이아닐로 비극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용당한 교훈을 찾지 못하고 55년전 무장강첩선 《푸에블로》호나포사건을 계기로 항공모함과 원자탄까지 가지고 조선에 덤벼들었다가 또다시 공화국앞에 무릎을 꿇었다. 판문점사건때도 그러했다.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 누구의 《핵보유》와 《핵위협》을 주실로 대조선압살책동에 지독하게 매달려왔지만 얻은것이란 망신과 조소, 허물어저가는 패권적지위뿐이다. 반대로 공화국은 핵강국, 세계최강의 힘을 가진 초강대국으로 행성의 중심에 우뚝 솟아올랐다. 70여년의 이러한 조미대결사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미국이 조선을 《악마》화하며 압살하려고 발광할수록

공화국은 더욱 승승장구하여 강대해지고 궁지에 몰리고 쇠퇴몰락하는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이다. 지난 2000년대초 외국의 한 인사가 《조선의 정치력학》이라는 논설을 발표할 일이었다. 논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뉴튼의 제3법칙처럼 미국이 압력을 가할수록 조선인민은 더 강해진다.는것. 미국이 핵무기로 위협하면 할수록 조선인민의 타격력도 더 강해진다.는것. 이것은 김정원수님방위원장께서 내놓으신 《조선의 정치력학》이라는것이다. 그렇다. 공화국은 지난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단도도 빼들면 잠정을 내리고 총을 내대면 대포를 내대며 침략과 위협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왔다.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핵무력정책의 법화와 함께 강대국, 정면승부의 원칙에서 미국의 국약하고 끈질긴 위협에 강력한 정의의 힘, 초강력으로 대응하면서 국위와 국강을 만천하에 떨치고 있다. 그에 대해 외신들은 이렇게 평하고있다. 《사실 조선반도의 매듭은

미국이 시종일관 조선을 적대시하는 립장을 버리지 않은데 있다.》, 《미국은 아마 70여년의 력사가 조선은 비록 작지만 조선을 전복하려는 자기들의 기도가 실패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는것을 잘 알고있을것이다.》, 《조선에 대한 압박은 미국에 도리어 여러가지 말썽거리로 가져다준다.》... 지어 미국내에서도 《조선과 공존하는 길이에 다른 방도가 없다.》, 《조선이 이미 이겼다. 손악이지만 언젠한 압박은 미국에 도리어 해를 끼친다.》라는 목소리가 매일같이 각계층속에서 울려나오고 있다. 력사와 현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불리해지는것은 조선이 아니라 미국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시간도 정의도 승리도 조선의 편에 있다. 미국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릴수록 더더욱 궁지에 빠져들것이며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유일초대국》의 악몽은 더욱 비참해질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고달픈 운명이다. 송정수

아이들의 밝은 웃음에 비낀 후대사랑의 세계

2022년, 참으로 극적인 한 해였다. 자주의 흐름을 역류하려는 제국주의의 횡포로 증대된 폭력과 분쟁으로 한해동안 세계적으로 1억명이 넘는 사상최대의 피난민들이 생겨났으며 (COVID-19)는 3억 7 400여만명이 넘는 감염자 기록과 120만이 훨씬 넘는 사망자를 새로 더 발생시켰다.

50년이건, 500년이건

공화국의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에 보내주신 역사적인 서한 《소년단기발놀이 강국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기》에서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가장 큰일은 후대들이 50년이건, 500년이건 남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엄하고 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붉은기를 억척같이 고수하고있는것도, 모진 곤난을 이겨내면서 세계최강의 무기를 만들고 발전소와 공장, 새 거리와 새 마을을 계속 건설하는 목적도 다름아닌 후대들에게 밝은 웃음과 부럼없는 행복을 안겨주고 자손만대 복락할 영원한 강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라고 밝혀주셨다.

2022년에 세계는 극난한 환경속에서도 더욱 힘차게 추주쳐오르며 국위와 국광을 온 누리에 떨치는 위대한 나라의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새겨안았다. 공화국은 오늘도 훌륭하고 강대하지만 매일 또한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50년이건, 500년이건

후대들을 위하여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한다고, 우선 강해지고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국가핵무력정책의 법화를 선언하시던 기념하신 그 음성,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조선로동당의 억척불변의 대적의지를 천명하시던 백두산악과 같은 천하제일령장의 그 모습.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회세의 천출위인께서 계시여 그 누구도 우리 아이들의 웃음을 지을수 없고 강대한 조국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는것을. 폭력과 전란의 가장 큰

생자는 다름아닌 아이들이다. 지금도 세계 각지의 피난민들속에서 불행과 고통으로 시들어가는 아이들의 애절한 모습을 수없이 찾아볼수 있다. 공화국에서도 미국과 남조선의 친미사대매국역자들이 일으킨 지난 전쟁시기에 수많은 아이들이 참혹한 재난을 당했다.

인민앞에, 인민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역사적인 서한에서 우리 당이 하늘처럼 받드는 인민앞에, 인민우에 우리의 아이들이 있다고, 더 담차고 더 활기있게 자라야 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는 억만자투의 품이 들어도 그것은 고생이 아니라 행복으로, 영광으로 된다고, 우리 당과 국가정착의 제1순위는 언제나 후대들을 위한 시책이며 이것은 조선로동당의 절대불변의 원칙, 영원한 국책으로 될것

의 의지이다. 후대들을 위함이라면 사생결단의 사선길, 아슬아슬한 가설다리나 사나운 풍랑길, 만리하늘길에도 주저없이 오르시는분,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분투하시며 희생적인 헌신으로 날과 달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이 하늘, 이 땅에서는 아이들이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더 높이 울려 퍼지고 있는것이다.

인민앞에, 인민우에

후대들이 50년이건, 500년이건 남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엄하고 강한 나라를 건설하는것,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의지이고 위대하고 강한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2022년에 세계에 다시금 각인시킨 선언이다.

책임이라는 위대한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의 말씀이 강산을 울린데 이어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젖체품을 공급하는것이 나라의 법으로 고착되었다. 악성비루스의 류입이라는 건국 이래의 대동난속에서도 애기어머니들에게 젖가루가 공급되는 전설이 태어나고 방학기간에도 젖체품들이 아이들에게 전진공급되는 희한한 화폭도 펼쳐졌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담긴 발구름소리를 들으며

그처럼 근간했던 지난해의 마지막날에 아이들의 대화합인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가 진행되었는 새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힘으로 강국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진모습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보여준 뜻깊은 화폭이었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자랑스러운 공화국이 또 하나의 부름이 있다. 아이들의 왕국! 이 부름처럼 공화국은 아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날 때를 위하여, 후대들과 관련한 사업이 국사중의 국사로 되는 나라이다.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는 위대한 해님의 사랑속에 활짝 피어난 해바라기들

단원들의 담찬 기상과 명강성하는 모습과 미래가 비껴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담긴 발구름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담긴 발구름소리를 들으며

그처럼 근간했던 지난해의 마지막날에 아이들의 대화합인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가 진행되었는 새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힘으로 강국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진모습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보여준 뜻깊은 화폭이었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자랑스러운 공화국이 또 하나의 부름이 있다. 아이들의 왕국! 이 부름처럼 공화국은 아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날 때를 위하여, 후대들과 관련한 사업이 국사중의 국사로 되는 나라이다.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는 위대한 해님의 사랑속에 활짝 피어난 해바라기들

단원들의 담찬 기상과 명강성하는 모습과 미래가 비껴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담긴 발구름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담긴 발구름소리를 들으며

그처럼 근간했던 지난해의 마지막날에 아이들의 대화합인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가 진행되었는 새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힘으로 강국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진모습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보여준 뜻깊은 화폭이었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자랑스러운 공화국이 또 하나의 부름이 있다. 아이들의 왕국! 이 부름처럼 공화국은 아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날 때를 위하여, 후대들과 관련한 사업이 국사중의 국사로 되는 나라이다.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는 위대한 해님의 사랑속에 활짝 피어난 해바라기들

단원들의 담찬 기상과 명강성하는 모습과 미래가 비껴있다.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담긴 발구름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 담긴 발구름소리를 들으며

그처럼 근간했던 지난해의 마지막날에 아이들의 대화합인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가 진행되었는 새세대들을 위한 사업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힘으로 강국의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진모습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보여준 뜻깊은 화폭이었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자랑스러운 공화국이 또 하나의 부름이 있다. 아이들의 왕국! 이 부름처럼 공화국은 아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떠날 때를 위하여, 후대들과 관련한 사업이 국사중의 국사로 되는 나라이다.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는 위대한 해님의 사랑속에 활짝 피어난 해바라기들



위대한 해님의 사랑속에 활짝 피어난 해바라기들

—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에 참가하였던 소년단대표들의 목소리 —

《붉은넥타이는 나에게 말해줍니다》
뜻깊은 새해의 첫날 나는 기념촬영장에서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 붉은넥타이를 매어드리는 영광을 지니였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장재도에 오실 때마다 저를 다정히 품에 안아주시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습니다. 이런 제가 소년단원으로 자라 아버지원수님께 붉은넥타이를 매어드리었으니 세상

대표증에 핀 해바라기
소년단대회를 앞두고 우리는 대표증을 수여받았습니다. 대표증에는 우리 소년단원들을 상징하는 해바라기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소년단대표들이 태양을 따르는 충성의 해바라기들중에서도 제일 큰 해바라기가 되기를 바라신다는것을

제일 먼저, 제일 첫자리에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소년단 제9차대회에 참가한 우리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가슴가득 안겨주시었습니다. 선물전달모임이 시작되어 제일 처음 내 이름을 부를 때 꼭 꿈을 꾸는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수많은 소년단대표들이

약속
소년단대회의 마지막밤을 나는 오늘도 잊을수 없습니다. 감동수 없었던 그밤 우리모두는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서 사랑과 믿음의 서한을 보내주신 이야기며 원수님의 사랑어린 선물을 가슴가득 받아안던 이야기랑 끝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는 대표증을 가슴에 꼭 안고 이렇게 마음다졌습니다. 대표증의 해바라기가 언제나 아버지원수님의 높은 뜻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10점꽃을 활짝 피우는 영원한 나의 모습으로 되게 하겠다고. 구장군 묵시고급중학교(초급반) 김성룡

인민의 세상에서 울리는 걱정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 땅 방방곡곡에서 새해 정초부터 매일같이 울려나오는 목소리가 있다. 《우리 독소농장의 모든 농장원들이 이렇게 한달한시에 궁핍같은 새집을 받았습시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도 꿈만 같아 남너로소모두가 흥겨운 출판물 떠날줄 모릅시다.》, 《우리 황금땅의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듭되는 이 사랑에 기어이 다수확의 풍년토끼가리를 높이 쌓아올리는것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한 고산군 설봉리, 회령시 창효리, 련포농실농장 등은 나라 도처에 일떠선 살림집들이 각각 층층 근로자들이 보급자리를 펴는 새집들이경사가 련일 났다. 이 나라 온 나라 인민들은 인민들이 제일 관심하는 살림집문제해결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 열화같은 인민사랑을 가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해 12월말에 진행된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도 세계적인 변혁을 안아오는 하나의 혁명이며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우고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세번째 해에 수도건설을 보다 통이 크게 벌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건설과 함께 새로운 3 700세대 거리를 하나 더 형성하며 2022년에 농촌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세기적인 변혁을 안아오는 하나의 혁명!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 사람들은 온 나라 인민들에게 더 좋은 행복의 보급자

리를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그이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에 는 추호의 드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세상은 나라도 많고 정치가들도 적지 않지만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사회발전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을 안아오는 혁명으로 내세운 인민의 자세로운 어머니는 없다. 집! 집은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보급자리이다. 비바람, 찬바람을 막아주고 포근한 잠자리를 마련해주며 혈육의 애뜻한 정을 나눌수 있는 삶의 요람이 바로 집이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도 그래서 생겨났을것이다. 언제나 애지는 자본주의 나라의 인터넷에는 이런 글이 실렸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어지럽기 짝이 없고 바퀴들이 득실거리는 목삭관직이나 석면관직에서 산다. 이런 집들의 벽은 손가락으로 눌러도 자리가 나며 못은 맨손으로 밀어넣어도 들어간다. 그 못에는 웃옷 1개만 걸수 있는데 민일 2개를 걸면 못이 빠진다. 옆집에서 말하는 소리가 죄다 들린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평범한 근로자들은 이런 집에서 사는것도 행운으

로 여기고있다. 바람도 추위도 눈비도 막기 힘든 천막집이나 지합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해어릴수 없이 많으며 그나마 없어 지하도나 지하철도, 한지에서 쪽잠을 자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이다. 지금 공화국의 그 어디서나 새 거리건설, 새 마을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며칠전에는 수도건설의 보람찬 전구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의 영예를 빛내어 갈 길의드높이 수많은 청년들이 또 하나의 새 거리를 일떠세우는 내건설장으로 탄원하는 탄원모임이 진행된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을 또다시 감동시켰다. 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청년중시정치가 안아온 자랑찬 현실이며 공화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애국적서한이다. 진정 인민들이 리치는 로동당시대, 사회주의민세소리는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의하여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당당히 누리면서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는 이 나라 청년아들딸들의 진정의 토로. 심정에 끓여넘치는 걱정의 세찬 분출이며 어느 나라, 어느 곳이 인민의 참세상인가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산 화폭이다.

도 평범한 근로하는 인민들이 선경거리, 선경마을에 삶의 보급자리를 펴고 참된 삶의 향유자로 되고있다. 그리고 인민이 안겨줄 행복의 별천지들이 련이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그 어디서나 새 거리건설, 새 마을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며칠전에는 수도건설의 보람찬 전구에서 사회주의애국청년의 영예를 빛내어 갈 길의드높이 수많은 청년들이 또 하나의 새 거리를 일떠세우는 내건설장으로 탄원하는 탄원모임이 진행된 소식이 전해져 사람들을 또다시 감동시켰다. 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청년중시정치가 안아온 자랑찬 현실이며 공화국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애국적서한이다. 진정 인민들이 리치는 로동당시대, 사회주의민세소리는 조선로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의하여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당당히 누리면서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고있는 이 나라 청년아들딸들의 진정의 토로. 심정에 끓여넘치는 걱정의 세찬 분출이며 어느 나라, 어느 곳이 인민의 참세상인가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산 화폭이다.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외세의 책동을 탄호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주제36(1947)년 11월 19일 깊은 밤이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북조선 인민위원회 전선부장을 집무실로 부르셨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이 또다시 조선에 대한 음흉한 침략야망을 드러내놓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었다.

《동무도 아는바와 같이 미제가 조선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시키려고 할 때 소련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은 조선에서 소비량군을 동시에 철거시키고 조선문제를 조선인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세계민주력량의 강력한 규탄에 의하여 음흉한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미제는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총회에 상정시키고 미제의 거수기를 발동하여 《유엔임시조선위원회》를 조작함으로써 조선문제를 관한 유엔의 《결정》을 실행한다는 명목하에 조선의 자국의 식민지로 만들기를 위한 책동을 본격적으로 감행하려고 하였다.

미제는 《민주주의》, 《법정의원》, 《남조선과도정부》 등 기관을 바꾸어달고 친미분자들과 민족반역자들에게 그 무슨 통치권의

일부를 넘겨주거나 하는듯이 《행정권이양》놀음까지 벌리면서 제놈들의 정체를 감추려고 책동하다가 이제는 《유엔임시조선위원회》를 내세워 조선을 영구분렬시키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언급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문가로 다가가시어 잠시 창밖을 내다보시다가 가슴아프신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우리 인민이 과거 근 반세기동안 이나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비참한 노예생활을 강요당한것만 하여도 억울하기 그지없는데 오늘 미제가 또 다시 우리 인민을 저들의 식민지노예로 만들려고 책동하니 이것을 어떻게 참을수 있겠습니까.》

선전부장도 치우는 격분을 금할수가 없어 말씀드리었다. 《미국놈들이 정말 파렴치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결연한 어조로 우리는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미제의 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여야 하며 그 진상을 세계의 공정한 여론앞에 폭로하여야 한다고, 그리하여 침략자로서의 미제의 추악한 면모가 만천하에 날날이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르시었다.

《미제가 조작해낸 《유엔임시조선위원회》의 비법성과 그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전명하는 무거운 글을 써서 방송으로 내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 글을 동무가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인민들은 미제가 《유엔임시조선위원회》를 조작한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우리 당의 목소리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방송원고집필방향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우선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의 대표도 참가시킴이 없이 우리 민족내부문제를 일방적으로 유엔에서의결정하게 한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욕일뿐 아니라 완전히 비법적인 행위라는것을 논리정연하게 말아놓아야 한다. 다음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임시조선위원회》이라는 내정간섭도구를 조선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꾀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남조선인민들앞에 나서는 투쟁과업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집필방향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글을 오늘 밤중으로 써서 레일 방송으로 내보내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었다.

《밤을 새워서라도 꼭 보장하겠습니다.》

신심에 넘친 그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글을 쓰는 일이 쉬운것은 아니지만 우리 일군들은 누구나 다 글을 쓸줄 알아야 한다고, 글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투쟁의 무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시며 방송원고를 다 쓰면 자신께서 한번 보아주겠다고 이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을 받은 선전부장은 밤새워 원고를 집필하였다.

원고집필이 끝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수정가필까지 해주셨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미제가 조작해낸 《유엔임시조선위원회》의 비법성과 그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립장을 전명하는 무거운 방송이 다음날 저녁에 나가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을 영구분렬시키기 위해 미쳐날뛰던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되었다.

본사기자 황금숙

핵위협과 핵위기의 파멸이 임인 총성비

공화국에는 제일동포들의 애국심이 깃든 수많은 창조물들이 있다. 그 모든 창조물마다에는 제일동포들의 애국지성이 조국청사에 길어 전해주시려는 절세위인들의 한량없는 은정이 뜨겁게 어려여있다.

알몸이나 다름없는 처지로 일본 땅에 건너가 풍나물을 실은 손수레에 생을 걸어야 했던 동포들, 초라한 가계방이나 음식점을 차려놓고 온갖 민족적모욕과 멸시를 피눈물 속에 감수하며 시시각각으로 덮쳐드는 파산의 위험속에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던 제일조선상공인들을 총련의 두리에 묶어 세워 조국과 인민을 위한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주시는 바로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었다.

제일동포상공인들에게 제일조선 인운들의 기본동력, 주력군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국을 위해 바치는 지성이 이 땅에서 활짝 꽃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었다.

주제 62(1973)년 5월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총련결성 18돐을 맞으며 첫 제일동포상공인운들의 기본동력, 주력군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국을 위해 바치는 지성이 이 땅에서 활짝 꽃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었다.

주제 62(1973)년 5월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총련결성 18돐을 맞으며 첫 제일동포상공인운들의 기본동력, 주력군이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조국을 위해 바치는 지성이 이 땅에서 활짝 꽃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었다.

총련결성 4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역사적인 서한에서

공인조국방문단 성원들을 몸가 끼이 불러주시고 자신께서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제일동포상공인들을 제일 사랑한다고, 제일동포상공인들이 조국에 기여하는 돈이 많을수록, 나라에 보탬을 크게 주는가 적게 주는가 하는것보다도 조국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그 애국정신이 귀중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애국적상공인, 진보적상공인이라는 값높은 믿음도 안겨주시었다.

뿐만아니라 주제71(1982)년 1월에는 사회주의애국상도 제정해주시고 높은 애국적정신을 발휘하여 조국의 사회주의건설과 총련애국사업에 물질적으로 크게 이바지한 제일조선상공인들에게 수여하도록 해주시는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제일동포들이 조국에 특색있는 기여를 할 때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사랑과 믿음은 얼마나 큰것이었던가.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 하려는 일념으로 애써 마련한 설비들에 《애국》이라는 값높은 칭호와 함께 기증한 동포의 이름까지 밝혀주도록 해주시고 공로가 많은 동포상공인들과 그의 가족들을 조국에 불러 크게 환영도 해주며 병치로도 받도록 하시였으며 조국의 명성지에 가서 록 휴식하라고 특별비행기까지 보내주시고 그 은정과 보살핌속에서 동포들의 애국공적은 더욱 아름답게 수놓아졌다.

아버지수령님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천품으로 이어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제일동포들이 마련해본 공장은 물론 직장들에 이르기까지 총성비를 세우고 거기에 기증자들의 이름을 새겨넣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총련결성 40돐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역사적인 서한에서

동포상공인들은 실지 생활체험으로부터 자기 조국과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사업에 광심과 지성을 바쳐나가는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상공인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참된 애국자로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참으로 그것은 동포상공인들이 받아안을수 있는 믿음의 가장 큰 믿음이었으며 청초중의 가장 고귀한 청초였다.

정녕 이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야말로 총련의 동포상공인들이 애국의 보람찬 한길에 너도나도 떨쳐나서게 하는 원동력이었으며 그들의 한생을 조국과 민족이 기억하는 참된 삶으로 꽃피워주는 따사로운 햇빛이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련과 제일동포들의 애국지성의 전통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현명한 명도에 의해 더욱 더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련상공인들과 제일동포들이 조국에서 경제활동을 실리있게 벌일수 있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셨을뿐만아니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바쳐가는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애국적삶을 조국청사에 아로새겨 빛내주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무한대 한 사랑에 고무된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으며 어머니조국의 대지위에 자랑찬 애국의 총성비를 높이 쌓아가고있는것이다.

참으로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크나큰 믿음속에 조국의 강화발전을 위해 바쳐진 제일동포들의 지성은 《애국》의 부름과 더불어 빛을 뿌리고있다.

본사기자 전영민



본사기자 황금숙

본사기자 전영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 원 회의의 진행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2월 1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천명하신 2023년도 사업의 총적방향과 중심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김호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들은 우리 국가의 부흥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의 길을 명확히 밝힌 가장 과학적인 실천강령이라고 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관동하였다. 특히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적투쟁

원칙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국위제고, 국권수호, 국익사수를 위하여 박하고, 대적대응방향을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투쟁방략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우리 국가의 도도한 전진기상과 우리 인민의 백철불굴의 투쟁기세를 발맞추어 전체 당원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진적투쟁에 적극 불려일일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주요목표와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토의되었다. 전원회의는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전 원 회의의 진행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2월 2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된 전원회의에는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평양시와 지방의 당원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새해사업의 총적방향과 제반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이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들은 우리 국가의 부흥과 사회

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의 길을 명확히 밝힌 가장 과학적인 실천강령이라고 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관동하였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미, 대적대응방향을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조선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투쟁방략으로 된다고 하면서 모든 당원들이 우리 국가의 도도한 전진기상과 우리 인민의 백철불굴의 투쟁기세를 발맞추어 전진적투쟁에 적극 불려나설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천도교청우당이 수행해야 할 주요목표와 실현방도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지배와 굴종, 범죄의 역사는 감출수 없다

핵위협과 핵위기의 파멸이 임인 총성비

지금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이 미국과의 《동맹》강화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역적패당은 올해가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체결 70년이 된다고 하면서 그 무슨 상징물을 만든다, 서울 통상에 미군의 이름을 새긴 《추모의 벽》을 건립한다 하며 역적계 놀아대고있다. 그야말로 친미사대매국을 생리로 하는 친화역적의 해

피한 추태이다. 조선반도평화과피의 주범,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쳐오는 침략자, 강점자가 어떻게 《우방》으로, 《동맹자》로 뽐수 있던 말인가.

미국과 남조선사이의 《동맹》관계란 실지에 있어서 상전과 주구사이의 지배와 복종의 관계, 굴종관계이다. 그것이 《강화》된다것은 곧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이 더욱 심화되고 우리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보다 더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미국이 남조선을 70여년간이나 군사적으로 강점하고있으면서도 그 무슨 《동맹》에 대해 떠드는것은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해서이다.

특히 최근 미국이 그 무슨 《북핵 및 미사일위협》을 떠들며 남조선과의 《동맹》강화에 대해 입이 닳도록 떠드는것은 남조선을 저들의 손아귀에 더욱 든든히 틀어쥐고 반공화국압살과 침략적인 인디아태평양전략실현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며 친미사대굴종의 길로 나아가고있다.

력대 남조선통치배들치고 친미사대에 물젖어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자

가 없지않은 윤석열역적패당은 선인자들을 훨씬 통가하는 특등매국노들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집권전부터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역설하는 역적패당은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기 바쁘게 미국상전과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의 재개 및 확대, 미전력자선의 조선반도전개, 《확장억제전략협약체》제가동 등을 모의하였다. 한편으로는 그 무슨 《가치동맹》에 대해 떠들며 남조선기업들이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도록 하였는가 하면 천년속적인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설것을 강요하는 미국의 강도적요구도 받아들이었다.

특히 역적패당은 미국과 각종 복합합동군사연습들을 편이러 벌리면서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을 극도로 격화시켰다.

지금 남조선 각계가 미국과의 《동맹》강화에 매달리

는 역적패당 때문에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면서 역적패당을 강하게 비난하고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윤석열역적패당이야말로 외세에 빌붙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우리 민족의 주적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으로 얻은것이란 수지와 과열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쓰라린 과거와 70여년간의 미국의 남조선강점사가 보여주는 교훈이다.

지금 윤석열역적패당은 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친미사대매국에서 살길을 찾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머지않아 저들이 명줄로 여기는 미국과의 《동맹》, 친미사대가 비참한 종말을 초래하는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몸서리치게 깨닫게 될 것이다.

핵위협의 장본인, 그 죄악의 역사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핵무기반입을 공포한 때로부터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알려진것처럼 1957년 7월 15일 남조선장검 미군이 핵무장화에 착수한다는것을 선포한 미국은 그해 10월중순 일본에 있던 미기갑사단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며 미제 24사단과 통합하고 《원자사단》으로 개편하였다.

뿐만아니라 1958년 1월 《오네스트존》 핵미싸일이 남조선에 배치되었다고 공식 발표하는데 이어 2월에는 의정부에 있는 미군비행장에서 이 핵미싸일과 함께 280mm 원자포를 공개하였다.

1960년대에는 《나이크 허클레스》, 《아라돌》, 《호크》 미싸일을 비롯한 각종 탄도 및 유도무기들과 핵지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책동을 비핵국가와 지역이 핵무기를 반입할수 없다는 국제적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75년 5월 30일 미국회 하원에서 있는 1976년도 국방예산심의회의에서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가 배치된 사실이 공식적으로 밝혀진것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책동으로 남조선은

미국의 각종 핵미싸일과 핵폭탄, 핵공격수단들이 짙게 깔린 세계최대의 핵전초기지, 핵화약고로 전변되었다.

남조선을 저들의 핵무기전시장으로 만든 미국은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끊임없는 북침핵전쟁연습책동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였다.

미국은 제2조선전쟁각본들을 전부 핵선제타격을 기본방식으로 하는 작전계획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수정보충하여왔다. 미국이 1950년대중엽에 벌써 북침핵전쟁계획인 《8-53》, 《10-54》를 작성하였다는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70년대의 《5일전쟁계획》과 《9일전쟁계획》, 《핵전쟁비상계획》, 1980년대의 《3일작전계획》, 1990년대의 《작전계획 5027-98》, 그 이후의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30》, 《작전계획 5015》 등 모든 북침작전계획들은 철저히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여 작성된것이었다.

미국은 이러한 북침핵전쟁계획에 따라 남조선호전광들과 함께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텀 스프리트》, 《키 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

언》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북침핵전쟁연습을 그칠새없이 광란적으로 벌여왔다. 지난해에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항공모함합동 전략폭격을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 윤석열역적패당과 함께 공화국을 겨냥한 북침핵전쟁연습들을 미친듯이 벌였다.

제반 사실들은 조선반도에서 진짜 핵위협의 주범, 핵범죄집단은 다음이나 미국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오늘도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항공모함합동단과 핵전략폭격기들을 비롯한 방대한 핵전쟁수단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 정세를 일촉즉발의 핵전쟁국면으로 몰아가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책동의 돌격대로 나서서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온 친화역적들이 다음이나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이다.

특히 윤석열역적패당은 《선제타격》이니, 《압도적 대응》이니, 미국과 핵자산의 공동운용과 관련한 《공동계획》, 《공동실행》이니 하고 공공연히 떠들며 핵전쟁의 불길을 터치기 위해 분별을 잃고 날뛰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저들의 범죄는 당반우에 울

러놓고 그 누구의 《핵문제》, 《핵위협》에 대해 떠드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고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 아닐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의 친미호전광들의 북침핵전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는 수습할수 없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이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북침전쟁책동을 반대배격하면서 반미, 반전, 반윤석열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휘두르며 공화국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오늘 공화국은 세계최강의 핵보유국으로 행성의 중심에 우뚝 솟아올랐으며 공화국의 군사적강세는 날로 고도화되고있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바로 이것이 공화국의 억척불변의 립장이며 선언이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상대가 누구이고 시대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것을 이제라도 똑바로 가려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영진



본사기자 박철남

외세와의 공조에 운명을 걸어보아야...

남조선의 윤석열역도가 미국, 일본과의 《3자공조》 강화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 있다.

얼마전 역도가 유럽의 어느 나라를 행각하면서 《북핵 위협》에 대처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군사력강화는 《북핵위협》 대응에 절실한 것이라고 떠벌인 것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외세의 힘을 빌어서라도 공화국과 끝까지 맞서보려는 반민족적대결정동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집권 초기부터 반공화국대결을 추구하면서 미일상전과의 《3자공조》 강화에 매달려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적의식이 풀수에 박힌 역적패당은 집권하기 전부터 공화국을 《주적》

로 규정하였으며 권력의 자리에서 올라온 다음에는 미국과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의 재개 및 확대,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 전개, 《확장억제전략의체》 재가동 등에 합의하고 그 리행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어왔다.

한편으로는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남조선의 대기업을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하면서 일본것들과의 《관계개선》에도 품을 들여왔다. 지난해 조선통해상에서 벌어진 련합잠수함훈련에 일본해상 《자위대》를 끌어들이는데 이어 최근에는 일본것들의 국가안보전략문서개정을 놓고 미국,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매달려왔다는 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새해에 들어와 윤석열역적패당이 《병존적대무인수상식》을 운운하며 일본

과의 《관계개선》에 품을 들고있는것도 반공화국대결정체실현을 위한 《3자공조》 강화책동과 무관하지 않다.

반공화국대결야망실현을 위해서라면 미국은 물론 민중의 천년속적과도 서슴없이 손을 잡는 천하여적무리들이 다름아닌 윤석열역적패당이다.

역적패당이 벌리는 《3자공조》 강화책동은 민족의 안전과 리익을 해치는 극악한 사대매국행위, 공화국을 암살하기 위한 반공화국대결공조, 전쟁공조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공화국을 타고있고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미일남조선사이의 《3자공조》 강화에 매달려왔다.

이를 위해 남조선과 일본것들과 함께 조선반도와 그 주

변에서 공화국을 겨냥한 각종 북침전쟁연습들을 끊임없이 벌이고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쟁연습들이 《확장억제전》이라는 명분으로 보다 위협한 성격으로 띠고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지난해 9월 조선통해에서 미해동력항공모함 《로날드 레건》 호라격집단이 참가한 가운데 미국남조선련합해상훈련이 강행된데 이어 미일남조선련합잠수함훈련이 벌어지고 10월초에 조선통해 240여대의 각종 전투기들이 동원되어 미국남조선련합항공중훈련이 강행된 것이 이를 여실히 실증해준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

광, 섬나라속속들이 《북핵 및 미사일위협》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있는것은 침략대행 《3자공조》 강화로 대조선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구실밑에 미일상전들과의 《3자공조》 강화에 매달리고있지만 그것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 없는 특등사대매국노, 반공화국대결에 환장이 된 천하여적으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날남이 드러낼뿐이다.

오늘 세계가 공인하는 무진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공화국을 《3자공조》 따위로 맞서보겠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역적패당은 외세와의 공조가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진 저들의 가련한 운명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전쟁부나비들의 가슴속엔 단풍

남조선호전광들이 무모한 군사적대결 책동에 더욱 미쳐날뛰고있다.

얼리친바와 같이 얼마전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이라는자를 비롯한 군부 호전광들은 군부대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며 《단호하고 강경하게 응징보복할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댈다. 《최상의 결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댈다. 《최상의 결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댈다.

뿐만아니라 미국상전과 각종 전쟁모의관들을 가지가 하면 련합포병훈련, 정밀타격훈련, 《핵》 및 대량살상무기제거훈련》들을 련이어 벌려놓으면서 무분별한 북침전쟁연습감독을 최종점검하고 실전에 옮겨보려고 발광하고있다.

남도 강대해지는 공화국의 국가방위력에 혼비백산한자들의 허세성격기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떠드는 《북의 도발》과 《위협》이란 저들의 대결적이고 호전적인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꾀변에 불과하다.

공화국이 취하고있는 국방력강화와 군사적조치들로 말하면 칠주월미 인민의 존엄과 안녕, 행복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조치들로서 문제시될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특히 그것은 미국과 윤석열역적패당의 날로 악랄해지는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 대처하여 국권수호, 국익수수를 위해 취한 정당한 대응조치들로서 역적패당은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아무런 자격도 없으며 오히려 저들의 전쟁대결

책동에 대해 겨레앞에, 세계앞에 통틀리 반성하고 모든 군사적대결책동을 걷어치우는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며 군사적대결광기를 부리고있으니 이것은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변변스럽고 후안무치한 것거라 아닐 수 없다. 조선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는 도발자는 다름아닌 윤석열역적패당이다.

역적패당의 광기어린 군사적대결책동은 저들의 무분별한 도발이 언제 어떻게 정벌의 무서운 불벼락을 불러올지 몰라 극도의 불안감에 싸여있는자들, 핵강국의 무진막강한 군사적대결책동에 전몰한자들의 속명적인 불안감에 따른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또한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안보》 불안을 녹차고 체면을 세워보려는 가스로운 민용에 불과하다.

사실 미국의 대표발에 불과한 처지에 가지고있는것이란 과철과 다름없는 병쟁기들밖에 없는 허세같은것들이 세계강의 힘을 지닌 핵보유국을 향해 사대질을 하며 풍수없이 놀아내는것이야말로 일간망둥이들의 추태, 제 죽을줄도 모르는 전쟁부나비들의 역겨운 망동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뒤일을 감당할 능력도, 자신 없이 《용성》, 《보복》과 같은 무분별한 말발들을 함부로 내뱉으며 가스롭게 날뛰다가는 비참한 자멸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것을 투박로 명심해야 할것이다.

본시기자 배영일

최근 윤석열역적패당이 그 무슨 남조선관 《인디아태평양전략》을 구제화한 최종보고서라는것을 공식발표한데 이어 올해를 그 실행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희명하게 날아대고있다.

미국에 매달려야 살아갈수 있는 식민지하수인의 가련한 처지를 여지없이 드러낸 친미공중적주태가 아닐 수 없다.

다 아나바와 같이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의 패권전략실현책동에 의해 동북아시아지역에 신형전군도가 형성된 조건에서 이전 《정권》들처럼 《균형외교》와 《전략적모호성》을 추구하는 경우 집권 전 기간 미국과 주변나라들의 편가르기식압박에 시달리면서 저들만 녹아나게 되었다고 우려하고있다.

그래서 고민하던 끝에 그래도 국제무대에 서 《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을 등에 업은 것이 집권유지를 위해서나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상책이라고 타산하고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는 남조선관 《인디아태평양전략》이라는것을 내든것이다.

특히 대중국봉쇄에 적극 가담하려는 미국의 강박이 갈수록 우심해지고 그것을 의면할수 없는 식민지하수인의 처지에서 그르며내는 상전의 환심을 사서 미국과의 동맹을 《포괄적전략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기술통행》, 《기술통행》, 《기술동맹》으로 확대하여 대외적교섭을 모면하고 여러 분야에서 저들의 리익을 실현하는 한편 인디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진출을 통해 《세계적인 중추국가》 지위를 차지해보려는 속심으로 부터 《인디아태평양전략》이라는것을 서둘러 공개하고 주요외교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부산을 띄우고있는것이다.

더욱 간파할수 없는것은 남조선관 《인디아태평양전략》이라는것을 공개하고 그것을 추진해보려는 역적패당의 책동이 인디아태평양지역 나라

들을 반공화국압박공조에 끌어들여 총과산에 직면한 《대북정책》을 부지하고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해보려는 흥심에 따른것이라는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론들과 전문가들은 윤석열역적패당이 남조선관 《인디아태평양전략》을 공개하고 그 추진에 설쳐대는데 대해 남조선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인디아태평양지역에서 허물어지려는 패권적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에 순종하여야 하고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피할수 없게 하는 행위, 인디아태평양지역을 차지하려는 령강들과의 대결에서 밀려날수밖에 없는것으로 하여 별다른 실현가능성이 없는 실례전략, 미국의 대중국억제정책에 적극 가담하겠다는 명백한 선언으로서 중국의 강한 반발과 보복을 불러오는 모험적인 전략, 경제상황과 민생을 더욱더 파국으로 몰아가는 큰 실책으로 비난당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현대판식민지주인 제 치도 모르고 《외교외교》라는 미사리수로 몸값을 올리며 추악한 친미사대매국노, 친하에 돌도 없는 정치시정배, 극악한 대결광으로서의 진면을 부지하려 하지만 그것은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개공에 불과하다.

역적패당이 남조선관 《인디아태평양전략》으로 얼을 짓기란 주변나라들의 강한 반발과 무자비한 보복, 대외적고립심화와 미국의 패권전략실현의 돌격대의 명에 더욱 깊숙이 쓰는것이다. 특히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더욱 몸서리치게 체감하게 될것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민심으로부터, 세인으로부터 《윤바보》, 《윤치천》, 《윤재양》, 《우능정부》, 《우대재정권》이라고 비난과 조소를 받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본시기자 김정혁



민생악화, 류혈참극을 부추기는 범죄행위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이 군사산업강화와 그에 기초한 무기수출에 열을 올리고있다.

지난해 《대통령실》에 무기수출을 주도하는 기구를 내내 준비를 해온 윤석열역적패당은 올해에는 군사산업수출을 조종하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하고 인연선발물들을 구성스레 벌려대고있다.

그에 따라 아래 것들도 《선출환구조조기》이니, 《법제정》이니 하며 부산을 띄우고있다.

제 주제도 모르고 설쳐대는 풍수없는 망동이 아닐 수 없다.

《전쟁을 먹고사는 나라》이고 세계 제1위의 무기수출국인 미국이 식민지하수인이 제 명역을 침범하려 하는것을 그냥 보고있고 있지 않을것이기에문이다.

이전에도 미국은 굶은 개부에게 코를 들이밀듯 남조선이 세계무기수출시장에 기웃거리 때마다 자국산기술도 용, 첨단기술무출발지 등을 내걸고 압력을 가하면서 기를 펴지 못하게 만들어놓곤 하였다.

리외분배에서는 제 할에비도 모르는 미국일진대 무기수출이라고도 알면서도 상전의 먹이감을 가로채보려는것이라든가 양보하지 않으리라 하는것은 분명하다.

윤석열역적패당이 무지무능의 극치이고 알면서도 상전의 먹이감을 가로채보려는것이라든가 양보하지 않으리라 하는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남밖에 나지나 않겠다 풀벼를 더 굴리는가 상전의 압박으로 체화품이 되어 파멸되기만 될고 물단지들을 처리할 전담부서나 만드는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다.

더우기 남조선산기물

이라는것은 이미 그 취약성이 널리 알려져 세인의 조소거리로 받는 불량품들이다.

이것저것 가져다가 대중 빛 내놓는 불량품들을 《명품 무기》, 《검증된 무기》라고 요란스레 광고하며 팔아먹기에 급급한 역적패당이야말로 늘거리장사군, 협잡군무리이다.

역적패당이 군사산업강화와 그에 따른 무기수출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폐쇄한 군사산업에 막대한 현세를 쏟아부어 당면한 일자리와 경제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일시적인 미봉책이다.

그것은 또한 불량무기, 녹거리무기를 첨대한 분정자들에게 팔아 류혈참극을 빚어내려는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특히 역적패당은 군사산업강화와 무기수출로 얻은 돈으로 최강의 핵보유국인 공

화국에 비한 군사적체제를 만회해보려는것같은데 가스롭기 그지없다.

윤석열역적패당이 군사산업강화와 무기수출에 광분하고있지만 일단 공화국에 비한 군사적체제를 속명적인것으로 감수하지 않을수 없으며 언제든 그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다. 더우기 그런 어리석은 것거리로 최강의 핵보유국과 맞서보려는 것은 가당치 않은 것이며 매우 위험한 자멸적 행위이다.

무지와 객기, 허망한 망상은 큰 큰 화를 불러오기마련이다.

윤석열역적패당은 제 처지와 저들의 행태가 가져올 파국적후과에 대해 투박로 가려보고 허황하고 무모한 책동을 걸어서올데 대한 민심의 목소리에 응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시기자 안권일

잠시 뜬해했던 윤석열역적패당의 《안방정책》, 《술판정》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한다.

헤이들이에서 돌아오기 바쁘게 《오랑》이니, 《만관》이니 하면서 역도와 나쁜 내가 겨우내기로 린일 수하를 거들고 불러오며 먹자판을 벌리고있다.

아무아무게는 여당의 지도부도 있으니 응당 마주앉아야 한다. 누구누구는 처음 맞이하는 식객들이다. 이미 약속이 되어있던 녀성의원들이다 등 온갖 구실을 다 붙여가며 밥맛으로 먹고 마시고 하는 판이다.

이제 있게 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때 자기에게 제일 충실한 노복에게 대대표라는 감투를 씌워주어 여당을 명실공히 《윤석열정당》으로 만들자고 해도 천운과, 비운과로 갈라져 옥신각신하는 《국민의힘》 것들을 끌어당겨야 한다는 음흉한 속심 그리고 《민생》을 론한다. 《민생》을 띄우며 민심과 여론의 환심을 사보려는 기도가 깔려있는 먹자판들이다.

밥상머리에 졸드던 허 《어주》 하 《너도밤나무》, 《나도밤나무》라는 식으로 다같이 《천운》이라 불러주는 역도의 《은혜》에 감복한 아래것들이 황실수설 환사를 리치는 꼴들이란 참으로 삼은 소대거리도 웃을 일이다.

더욱 가스로운것은 윤석열역적패당이 던져주는 먹이감에 포만감을 느낀 패거리들이 입만 벌리면 《윤석열

역적패당이 섬나라것들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야망을 묵인, 비호하면서 동조해나서고있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섬나라것들과 손을 잡고서라도 반공화국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층의 일부것들의 국가안보전략문서개정을 《평화헌법》정신에 대한 무시, 조선반도침략야욕의 로골화 등으로 규탄하고 《조선반도침략야욕을 로골화하는 일본을 편드는 윤석열(정권)이 재집권하지 않기를》, 《일본의 조선반도침략을 뒤받침하는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라》고 하면서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는것은 지극히 응당하다.

울사오직도 무색케 할 친일사대매국행위를 일삼으면서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짓밟고있는 윤석열역적패당이 머지않아 겨레의 준엄한 심판대에 우에 서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리기영

구결외교가 《전략》인가

윤석열역적패당이 년초부터 로동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리고있다.

《민주로총》과 《보건의로 산업로동조합》, 《금속로동조합》 등 주요로동운동단체들의 전, 현직간부들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투쟁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정보원》과 경찰을 내몰아 《민주로총》본부에 비롯한 수십곳을 압수수색하고 체포소동을 벌린것이 대표적실례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기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단적위력을 파시하는 업무방해, 폭력행위, 불법집회시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고이며 《국토교통부》, 《교육로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내몰아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을 압박하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인론,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로동운동단체들이 시사하는것은

《로동계중이》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로동계에 대한 숙청이 강행되고있다고 경고하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이 왜 년초부터 로동계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탄압의 도수를 높이는가 하는것이다.

우선 올해 역적패당이 핵심과제로 내세운 《로동개혁》, 《교육개혁》, 《년공개혁》추진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로동운동단체들의 기를 꺾어놓기 위해서이다.

지금 남조선의 로동 및 교육단체들은 《로동개혁》은 기업들이 로동시간확대와 로동자해고를 미움대로 할수 있게 하는 재벌개혁, 반로동정책에 《교육개혁》은 사회적 보수를 노린 교육개혁이라고 반발하면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더우기 《민주로총》은 《로동자정치세력화》를 이해의 목표로 내걸고 《120만 조합원》이 앞장서는 전민중적투쟁으로 반민주, 반민생, 반로동 윤석열(정권)을 끝장내고 로동자정치세력화로 새로운 사회를 위해 끈결을 내민다. 《진보정당은 물론 제 진보민주진영과 함께 로동자, 민중의 리익을 대변하는 로동자들의 정치를 시작하자》, 《로동자정치세력화》, 《국회》를 바꾸자.》 등을 주장하고있다.

로동계의 이러한 투쟁은 반로동정책, 반인민적양정에 매달리고있는 역적패당을 더욱 곤경에 몰아넣게 될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일가족들의 부정부패와 친미친일사대매국책동,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으로 극도의 통치위기에 빠져 허

우적거리고있는 역적패당이다. 이러한 속에 로동계가 대중적인 반윤석열, 반(정부)투쟁에 적극 나서는 경우 역적패당의 운명이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리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가 없다.

이로부터 역적패당은 지난 해말 《민주로총》산하 화물련대의 총과업투쟁을 《불안정한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면서 강경진압하고있고 년초부터 《무능과 실정을 가리우기 위해 《보안법》을 앞세운 리범공작, 색갈것취우기》로 때때

《로동조합과 《민주로총》을 이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정권)의 공안목적에 맞서 《보안법》철폐와 민주주의사수투쟁에 나서겠다. 《올해를 윤석열퇴진년으로 만들자》고 하고있다.

생존권을 위해, 참다운 정치자유와 권리를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로동계의 투쟁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비참한 파멸을 더욱 앞당길것이다.

허성

《로동조합과 《민주로총》을 이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정권)의 공안목적에 맞서 《보안법》철폐와 민주주의사수투쟁에 나서겠다. 《올해를 윤석열퇴진년으로 만들자》고 하고있다.

생존권을 위해, 참다운 정치자유와 권리를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로동계의 투쟁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비참한 파멸을 더욱 앞당길것이다.

허성

《로동조합과 《민주로총》을 이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정권)의 공안목적에 맞서 《보안법》철폐와 민주주의사수투쟁에 나서겠다. 《올해를 윤석열퇴진년으로 만들자》고 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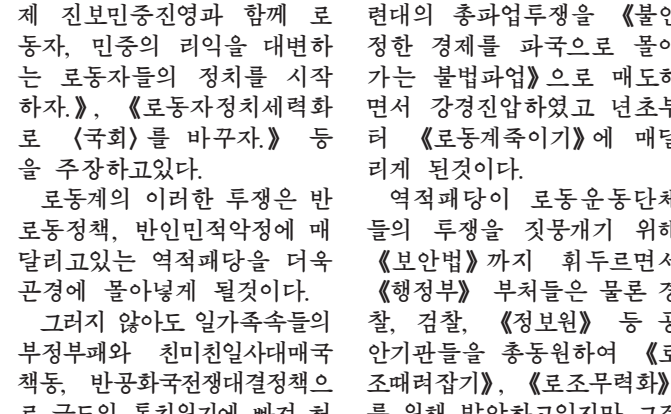
생존권을 위해, 참다운 정치자유와 권리를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로동계의 투쟁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비참한 파멸을 더욱 앞당길것이다.

허성

《로동조합과 《민주로총》을 이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정권)의 공안목적에 맞서 《보안법》철폐와 민주주의사수투쟁에 나서겠다. 《올해를 윤석열퇴진년으로 만들자》고 하고있다.

생존권을 위해, 참다운 정치자유와 권리를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로동계의 투쟁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비참한 파멸을 더욱 앞당길것이다.

허성



《로동조합과 《민주로총》을 이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정권)의 공안목적에 맞서 《보안법》철폐와 민주주의사수투쟁에 나서겠다. 《올해를 윤석열퇴진년으로 만들자》고 하고있다.

생존권을 위해, 참다운 정치자유와 권리를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로동계의 투쟁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비참한 파멸을 더욱 앞당길것이다.

허성

조선미술박물관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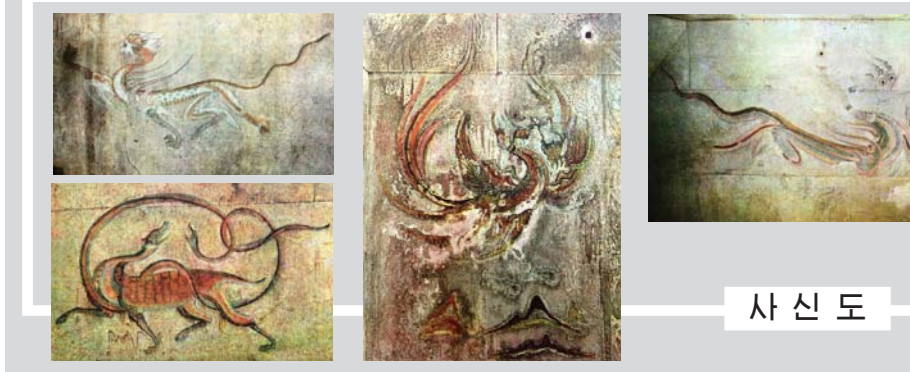
고구려시기의 미술작품들 (2)

김경희회사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인물풍속도와 사신도가 있는 홀에 들어섰다. 그중에서도 강서구역의 덕흥리무덤에 그려진 벽화 《활쏘기경회》가 눈길을 끌었다. 출현을 기다리는 기마선수를, 말을 타고 달리면서 앞뒤로 목표물을 겨누고 활을 쏘는 선수들, 엄격한 표정을 하고있는 심판원과 기록원 등 벽화의 그림은 활쏘기를 비롯한 무술을 적극 장려해온 고구려의 상무기풍을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상수준이 높아 지금까지 발굴된 무덤벽화의 인물풍속화들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김경희회사는 주인공과 여주인공이 시종군들을 거느리고 교예를 구경하면서 행차하는 장면을 가리켰다. 모자를 쓰고 끝동과 깃에 녹색천을 두른 황도색두루마기를 입은 주인공과 색동치마에 검은 저고리를 받쳐입은 여주인공의 모습은 매우 섬세하고 정교로운 선들로 그려져 있어 볼수록 감탄을 자아냈다.



《강서구역 무덤》



사신도

2월의 절기들에는 립춘과 우수가 있다. 립춘은 봄이 시작되는 절기를 일러오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은 오랜 옛날부터 립춘을 맞으며 집안팎을 깨끗이 손질하고 그해의 소원이나 새봄을 맞이하는 글을 써서 대문이나 벽장같은데 붙이곤 했으며 움과, 신강채 등으로 봄의 향취가 풍기는 음식들을 만들어 먹었다.

이 이 시기에 들어서면 북부의 고산지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온도가 0°C 이상으로 올라가며 눈석이 시작되는데 농민들은 눈석이 물을 웅덩이마다에 잡아두고 농사차비를 서둘렀다.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에 웃놀이, 바를당기, 널뛰기, 연피우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민속놀이도 진행하곤 하였다.

2월의 절기와 민속

올해의 립춘은 2월 4일, 우수는 2월 19일이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에 들어서면 북부의 고산지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온도가 0°C 이상으로 올라가며 눈석이 시작되는데 농민들은 눈석이 물을 웅덩이마다에 잡아두고 농사차비를 서둘렀다.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에 웃놀이, 바를당기, 널뛰기, 연피우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민속놀이도 진행하곤 하였다.

올해의 립춘은 2월 4일, 우수는 2월 19일이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 시기에 들어서면 북부의 고산지대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온도가 0°C 이상으로 올라가며 눈석이 시작되는데 농민들은 눈석이 물을 웅덩이마다에 잡아두고 농사차비를 서둘렀다. 우리 선조들은 이 시기에 웃놀이, 바를당기, 널뛰기, 연피우기를 비롯한 다채로운 민속놀이도 진행하곤 하였다.

《구불다》와 《취다》 라는 말이며 직선이 못되는 모든 대상에 두루 해당된다. 예: 길이 구불다. 취다는 곧은 물체가 구부러졌거나 뜻이나 마음을 굽힌다는 뜻이다. ① 자가 취다. ② 《청성골대장같은 사람은 그저 인정으로 휘어야 하느니라.》

《구불다》와 《취다》 라는 말이며 직선이 못되는 모든 대상에 두루 해당된다. 예: 길이 구불다. 취다는 곧은 물체가 구부러졌거나 뜻이나 마음을 굽힌다는 뜻이다. ① 자가 취다. ② 《청성골대장같은 사람은 그저 인정으로 휘어야 하느니라.》

조선의 국가상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는 해방후 공화국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어 새 조국을 건설하던 역사적시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창작성되었다. 국가는 해방 나라를 가사와 선물로써 형성한 승가형식의 노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는 해방후 공화국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어 새 조국을 건설하던 역사적시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밑에 창작성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의 작자 박세영과 작곡가 김일균이 창작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는 조선의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력사와 전통, 인민들의 불타는 애국열의를 폭넓고 깊이있게 담고 있다. 또한 조선인민의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어나가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원한 인민의 나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방에 떨쳐갈 역사의 지평을 격조높이 노래하고 있다.

은 나라 인민이 심장으로 부르는 국가의 장중한 선율은 변형하는 강국의 기상을 안고 누리를 진감하고 있다. 본사기자

영화배우 문예봉

1930년대 초 서울의 영화관들에서는 무성영화 《임자없는 나무배》가 성황리에 상영되었다. 이 영화의 주인공역을 맡은 여배우가 바로 문예봉이었다. 그 후 첫 무성영화 《춘향전》에서 춘향역을 맡게 된 그녀는 순결하면서도 외유내강한 춘향의 성격과 내면세계를 진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문예봉은 여태로 고대하던 우리 선조들이 즐겨온 민속명절중에는 정월대보름도 있다. 정월대보름명절은 음력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데 14일은 《작은보름》이라고 하고 15일은 《큰보름》이라고 하였다.

그는 그날의 감격을 가슴에 안고 해방후 공화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예술영화 《내고향》에서 지주아들놈의 유혹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여성으로서의 절개를 지키며 관필의와와 상봉을 기다리는 옥단의 성격울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그 후 그는 예술영화 《다시 찾은 이름》, 《성장의 길에서》, 《금강산처럼》 등 많은 영화의 주역을 맡아 순박하면서도 강직한 조선녀성의 모습을 진실하고 섬세하게 그려 조선영화사의 한페이지를 수놓게 되었다. 인민배우인 그는 국가훈장 제1급을 비롯하여 많은 훈장과 메달을 수여받았다. 본사기자



참으로 《임자없는 나무배》에 올라 방황하던 너매우가 닦을 내린 곳은 은혜로운 공화국의 품이었고 그 품에서 그의 생은 보석과도 같이 빛날 수 있었다. 본사기자

마양 흰 족제비

백과 네다리의 안쪽, 귀끝과 꼬리끝이 희고 나머지 부분은 밤색이다. 겨울털이 흰색으로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평지로부터 해발높이 3500m의 높은 산지대에 이르러까지의 산지에서 흔히 큰 나무의 뿌리, 바위, 돌각담 등에서 다른 동물들이 쓰다 버린 낡은 굴을 쓰고 산다. 주로 쥐류를 많이 잡아먹으며 작은 새, 새알, 개구리, 뱀, 곤충 등도 먹는다. 한배에 4~7마리(최고 9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귀를 많이 잡아먹으며 털가죽의 질이 좋아 리용가치가 아주 높다. 마양흰족제비는 마리가 적은 것으로 하여 적극 보호되고 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로인들을 존경하는 민속풍습 《경로회》(2)

고향마을에 갔든 전설만 보아도 로인들의 깊은 씬속을 알 수가 있다. 옛적에 마을에 살던 힘장수가 단번에 발을 갈아엎을 마음으로 영각이 우렁찬 황소 두마리에 연장을 매었다고 한다. 그런데 몸집이 실하고 기운이 어스비슷한 황소들은 시꺼먼 눈알을 디룩거리고 코를 헝헝 불며 맞붙질만 할 뿐 발을 갈지 못하고 있었다. 힘장수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랐다. 그렇다고 무슨 용맹은 수는 없었다. 이때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있었다. 초라한 행색의 늙은이었다. 《이보라구, 젊은이 생애를 쓰고있구만.》 길가던 나그네가 제갈같이 나 같았지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 아니요왔지만 힘장수는 상대가 늙은이임을 가려보고 공손히 대꾸했다. 《그럼 로인님에겐 무슨 수가 있소이까?》 《음과 음, 양과 양은 서로 밀치고 밀려하려는게 정해진 리치인데 어찌 황소들끼리 짝을 무어 부릴수 있으리오.》 늙은 나그네는 이웃의 발머리에 매어있는 암소를 가리켰다. 《한번 저 암소를 끌어다가 황소와 쌍을 지어보게. 그럼 생각대로 발을 푹푹 뒤집어엎을 수 있을거네.》

《아버님, (우물집) 머느리 같은 너자는 온 동네앞에 끌어내어 혼날을 안겨야 할 줄로 아나이다.》 아버지의 고개가 천천히 저어졌다. 《애들아, (우물집) 머느리도 나쁘지만 보다는 그 집 아들너저이 더 틀러먹었다. 부부한몸이라고 인사 사람이 나 빠지는 건 다 사내너저의 탓이야. 하여튼 그들이 제정신이 들도록 무슨 마련은 있어야 했다.》 한참 지나 배가 불췌해진 로인들을 존경하는 민속풍습 《경로회》(2) 글 전철호, 그림 박봉혁



《아버님 말씀이 옳소이다.》 하고 대답은 했지만 《우물집》 젊은이들의 교묘한 행실을 때를 방도가 떠오르지 않아 무탈의 마음은 무거웠다. 《자, 또 발을 갈아보라.》 무탈은 제끼 자리를 차고 일어나 보았을 잠았다. 발을 갈며 멀어져가는 안해를 바라보느니라 떠나간 친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수 없을었다. 《오강을 그냥 내버려두었더니 이 어찌된 일이지?》 아버지의 재촉에 어머니는

유구한 력사, 찬란한 문화

정월대보름명절은 음력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데 14일은 《작은보름》이라고 하고 15일은 《큰보름》이라고 하였다. 음력 1월 15일을 대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새해에 들어와 첫달에 맞이하는 보름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날에 우리 선조들은 새해의 행운과 풍년들을 바라는 소박한 념원을 반영하여 날가리대세우기, 달맞이, 들불놀이, 과일나무시집보내기, 룡알뜨기 등의 의례행사를 진행하였다. 들불놀이는 해불을 켜두고 들안에 나가 목은 잔디를 태워버리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농사에 해를 미치는 벌레를 죽이는데 유익한 놀이였다. 날가리대세우기, 과일나무시집보내기, 룡알뜨기 풍습들도 새해에도 부지런히 일하고 풍년이 들게 하려는 당시 사람들의 소박한 지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정월대보름 풍습

도 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대보름명절 날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즐겁게 지냈다. 대보름의 명절음식으로는 오희, 약밥, 엿, 복쌈, 마른나물 등이 있다. 정월대보름날에 오희를 지어먹는 풍습은 새해에도 오희이 잘되어 풍년이 들며 또 오



본사기자

메밀묵

메밀묵은 메밀농마를 풀인 다음 식혀서 영키게 한 음식이다. 메밀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기름, 레몬산, 여러가지 비타민, 플라보노이드, 효소 등이 들어있어 몸을 보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며 열을 떨구는 작용을 한다. 또한 독을 풀며 소변이 잘 나가고 설사를 멈춘다. 메밀묵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메밀쌀 500g일 때 양념장 20g을 준비한다. 메밀쌀은 물에 불구었다가 물을 두고



《속담과 유래》 어느날 독지계를 작대기로 뺨쳐놓고 앉은 한 사람이 장사를 하여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공리를 하였다. 그 공리란 독을 판 돈으로 닭알을 사서 사는 집에 부락하여 깨운다는 것이었다. 병아리가 깨어나면 절반씩 나누어주고 또 아는 집에 맡겨서 기르고 큰 닭이 되면 또 알을 받아 그런 식으로 계속 늘어 닭이 수십마리가 되면 그 닭들을 팔아 돼지새끼 알들을 사서 그 수를 늘려 다음에는 암소를 사서 그것을 밀천으로 논밭을 사고 기와집을 짓고 장가